

미국의 신예 제레미 립킹

## 그들의포즈에는 특별함이있다

제레미 립킹의 초상화는 한결같이 '반데르 가우' 같은 느낌이다. 뾰족 모르게 고전적이면서 오래된 듯한 그려면서도 세련되고 신비스럽다. 인물들은 제각각 같은 사색에 잠겨 있는 듯하다. 전체적인 느낌은 대체로 어둡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 더 눈길여진다. 그렇게 한 번 더 보고 나면 그 뒤엔 자꾸자꾸 그의 그림들 몰아보게 된다.

→ Self-portrait, oil on canvas, 81.2x110cm  
→ Peter Dinklage, oil on canvas, 112.4x71.1cm

출처: 제레미 립킹의 초상화 시리즈 '반데르 가우' (1911년) - 뉴욕 미술 박물관 (NYM) / 출처: 제레미 립킹의 초상화 시리즈 '반데르 가우' (1911년) - 뉴욕 미술 박물관 (NYM) / 출처: 제레미 립킹의 초상화 시리즈 '반데르 가우' (1911년) - 뉴욕 미술 박물관 (NYM)

일일이 초상화는 묘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 '이 소녀는 대체 왜 화가 만족 남표적으로 봐 상 위에 걸려있어 있을까', '얼굴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는 게 어찌는 누군 보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아픔이름이 품이 살짝 배웠다. 하지만 그 아픔이름은 아파기로 쓸 수도, 노개로 무를 수도 없을 것 같다. 다만 그림으로 그럴 수 있을 뿐인 어떤 삶의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다.

미술계의 언더그라운드  
'사실화'가 공명했다

"처음엔 다른 작가들이 무관심해하는 이 분야가 그저 미스터리하게 느껴졌어요. 중용에서 이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사실주의는 대체 뭐가 하는 초기였어요. 그런데 미술사의 시작이었던 이 분야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LA에서 작업하는 젊은 작가 제레미 립킹(JRM). 그는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무 살 때부터 미술계에 있던 언더그라운드가 돼버린 '사실주의 (Realism)' 유행에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극사실주의라면 오히려 사실주의 그림은 어쩌면 이제 미술계에서 가장 상업이 되어버린 것도 모른다. 대체 사실주의가 무슨 매력이 있겠냐. 이 젊은 작가는 15년 동안 사실주의 회화에 지금까지 총 몇 개의 자네고 있을까?



『The Girl with a Pearl Earring』 by Thomas Gainsborough, 1766

영상이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시실리아'는 실로 말야 갈수록 깊고도 방대했다. 그는 추상화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 사실화가 오히려 살맛 없어도 무엇을 말하려는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게다가 언어와 국경, 계층과 계급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언어'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니 마음에 든다. 그에게 있어 사실화는 자연과 사람들과에서 영감을 얻는 만큼 주어나 소재가 무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그만큼 다양하니 흥미진진할 뿐이다. 지루한 소재도 표방에만 약간 변화를 준다면 다른 색을 입혀 단번에 매력적인 존재로 변모할 수도 있다. 특히 사실화를 공부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찾아나오면 좋을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그게 작

과 사상이 얼마나 크게 달라 보일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한다. "꼭 어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대변할 때가 있는 것처럼 '시실리아'의 매력은 별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주의 매력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는 난감해 했다. 그는 리얼리즘의 매력을 별로 표현하기에는 언어의 한계가 어떤 정도처럼 그를 괴롭힌다고 했다. 그 한계에 맞춘 사실주의 매력을 설명하러니 그에게는 아무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영성은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삶의 미묘함을 그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대신 시나 소설을 썼을 것이다.

### "오픈 하트"로 살의 여백을 그리다

영상이 그림은 전통 보면 못 하거나 전체적인 느낌 없이 20세기 근대 회화의 아이치로 불리는 표방 스 추기 인상파 화가 중 세련된 작품을 인상해 왔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세련의 방향은 별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영성은 추상화, 특히 액션화를 좋아하게 되면 리얼리즘의 미적 화가 존 상이 시전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말한다. 듣고 보니 과연 그의 그림에서 시전트의 영향이 보인다. 하지만 그 영향은 그야말로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제왕이 영상이 자신에게는 19세기 후반의 존 상이 시전트, 로어인 조르제, 안테르스





소원과 비전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단지 지난 인생주의 회화의 계승자인 것만은 아니다. 제재이 일당이 그의 고전적인 스타일에 얽는 삶은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다.

예술에 접근한 카이슬을 계기인 바사는 일곱 자가 연의 목록만 못 하지 기업을 오존 허지(Open Touch)과 이름 지어 얼마 전 새로운 회화 기업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일당은 그림을 그릴 때 못 미치는 과감하게 차원이 높다는 느슨한 방식으로 일한다.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캔버스가 새를 일한 연을 통해 노출된다. 불갑을 계속 덧칠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이 어색은 여전히 캔버스에 남는다. 하지만 이 어색은 미완성의 증거 결코 남지 않는다고. 오히려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의 숨결처럼 그의 작품에 생명감을 불어넣는다. "제가 쓰는 이 기법은 앤스 사이언스에 공간을 조금씩 남겨두고 유희를 즐기는 방식이에요. 아주 거창하게 말해보면 작은 틈들이 존재하지 않는 벨리시 보일 오히려 재해를 선행하고 두 겹씩 더 덧칠하게 해요. 아직 살아 있는 듯한 신선한 느낌도 더해줍니다."

### 살을 고스란히 녹여낸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일당은 그가 보고, 현재 살고 있는 삶, 즉 생활 속에서의 느낌과 생각, 감정 위치를 고스란히 그림 속에 표현하려 한다. 그림을 보는 이들이 그의 그림을 통해 이야기 아닌 실제 삶, 그대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가 즐겨 그리는 것은 사람의 몸과 얼굴 그리고 자연 풍경이다. 때로는 실제 추석의 장소에 모형을 채우고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사람이 아니라 제 그림 속에서 진짜 삶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요. 실제적인 삶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사람의 몸을 그리는 일이 가장 좋아요. 사람마다 제각각 특별한 느낌과 포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포착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징이나 포스는 정말 예측 불가한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짓을 보면 인간의 몸에서 어떤 삶의 거대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술이니까 생각해요. 제가 그림 그림 속에 담으려는 순간이 무

척 흥분합니다."

제재이 일당의 그림들은 마치 순간을 캡처한 사진 같다. 한때에 힘을 피고 무엇인가 고통을 생각하는 여자, 물을 만지는 꼬마의 뒷모습, 앉았이 흰 리프를 누르는 처한제 힐리스 안색처럼 입고 초대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어린, 천천히 지어에 앉아 있기는 생각에 빠져 있는 젊은 사내 등. 그의 그림 속 주인공들은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일상한 한 장면처럼 익숙하고 평범하게 보인다. 우리의 삶은 사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으로 짜여 있다.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도 있고 고통과 반사에 지로운 순간도 있으며, 행복에 겨운 순간도 죽음에 걸린 순간도 있다. 하지만 제재이 일당이 그리는 순간은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번뜻 보일 아무렇지도 않은 정지 상태일 뿐이다.

일당이 그리는 인물들은 무엇인가를 하려다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의 그림에 빠져 있다면 묘하게도 인물들이 벽을 살짝 물러나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의 사일주의 그림이 사인 작품과 다른 지점은 바로 이런 느낌에 있다. 그 느낌은 통해 우리는 그림이 그림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누군가라고 느끼게 된다. 그들은 그림의 인물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여 자신이 하려던 일을 멈추거나 잊었으며, 그들이 맞이한 그 순간은 마치 영원하고 가 닿는 것이다.

제재이 일당의 회화로서의 매력은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은 슬픔과 분노, 감격과 같은 극적인 순간들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애를 통해 느끼는 감정은 그처럼 지극히 이전은 살고 싶은 욕망과도 밀접한 것이다. 제재이 일당은 우리의 행복하고, 소중한 일상의 한 장면에서 삶의 미묘함을 발견하고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삶의 다채로운 비밀을, 마치 벨레 카시를 보듯듯이 정신택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말으로는 하려던 아무 거대한 유희 작업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근처 바닷가나 냇가에 산의 풍경 같은 작업이요. 제재이 구할까봐 제 별장이 있는 냇가대로 그림을 그리려 해요. 거기서 대강을 구상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두고 작은 크기의 유희를 그려도 싶어요. 몇 년 전까지만 작업한 인물은 어찌할까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전해보고 싶어요."

로레나스와 버르코 시대에 정황이다 요즘에 와



1. 'October Girl, also known, 1924-1925, Oil  
—The Art, also known, 1924-1925, Oil

서는 길거리 회화들의 생일 수단이 되어버린 조상들. 한때 미술의 주류는 이제 있는 것의 재현과 이를 통한 '표현'이라는 아이디어와 콘셉트, 그 또한 정지적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어쩌면 현대 미술이 주는 이런 번뜩임과 재기를 제재이 일당의 그림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제재이 일당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삶의 순수한 회화적 인간의 인상을 역시 다른 현대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몸과 포스에서 살아 있음의

그 사실적이고 고스란히 회화, 비범스럽고도 비범한 삶의 순간을 담기에는 제재이 일당, 그의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아도 너무나 놀라움 내 마음도 어느새 더 깊어진 것이다. >

